

# 금융단불자련 자구책 '고심'

## IMF 구조조정 · '금융빅뱅' 영향 12개 은행불자회 사실상 법회 중단

IMF이후 금융업계가 대량감원 한 파와 이달말부터 본격화되는 은행 합병등 '금융빅뱅'으로 불자회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26개 은행중 불자회가 구성된 곳은 16곳. 이중 한국은행 서울은 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등 4개 은행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은행불자회 법회가 IMF 관리체제 이후 구조조정 여파로 중단된 상태다. 또 창립을 준비했던 광주은행도 당분간 손을 놓고 분위기를 살피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단 불자회가 타단체에 비해 어려움이 큰 것은 간부와 여성회원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타은행에 비해 비교적 바람이 적었던 한국은행은 23%의 직원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을 거쳤다. 불자회는 간부회원이 명예퇴직을 하고 여성불자회원들이 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40%의 회원감소를 보였다. 특히 은행불자회가 운영에 애로가 큰 것은 갑자기 회장과 임원단들이 정리되고 되는 등 환경변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2일 정부가 대형시중은행에 대해 6월말까지 정밀경영평가를 거쳐 합병·정리하겠다고 밝혀 금융단불자연합회는 17일 상임간사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가 밝힌 시중은행 합병·정리계획에 따르면 26개 은행을 3~4개의 은행으로 합병하여 세계 1백대 초대형규모로 육성하고 10개 부실은행은 과감하게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1차로 국내은행중 가장 규모가 큰 조흥은행 상업은행 한일은행을 합병할 방침이며 신한 외환 국민 주택은행이 선도은행 및 합병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은행불자회의 대대적인 통합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이어대

한 준비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 하용이회장(한국은행)은 "전반적으로 금융단 불자회의 어려움이 올 하반기까지 갈 것 같다"며 "매월 열리는 각 은행 회장단의 모임인 간사회의에서 각 불자회를 수시로 체크하고 합병의 경우는 연합회가 조정하는등 변화되는 금융계의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장·직능단체중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해온 금융단불자회가 금융빅뱅의 한파를 극복하고 어렵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교계의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할 때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김원우 기자

### 우리 모임에선

#### 세무사불자회 성지순례

세무사불자회(회장 송호승, 영진회계법인 대표)는 13일부터 14일까지 보은 법주사와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사로 전반기 성지순례를 떠났다. 세무사불자회는 법주사, 금산사에서 법회와 주지스님의 법문을 듣고 송덕상법사(조계종 포교사) 지도로 선운사 도솔암에서 철야정진 할 계획이다. 송호승회장은 "회원배가운동차원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불자세무사들에게 회비를 받지 않겠다"며 "세무사불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전국 세무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2)598-7300

#### 대구산악회 통고산 산행

대구불교산악회(회장 장병국)는 21일 경북 울진 통고산(1067m)으로 6월 정기산행을 떠났다. 회비는 2만원이며 점심은 지참해야 한다. (053) 556-3553

#### 충북예비역회장 이만호씨

충북예비역불자회(회장 이만호)는 5월 2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계획 및 신입임원단을 구성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내년 2월 완공예정인 선불교회관 건립불사에 회원들의 역량을 결집키로하고 신임회장에 이만호씨(49, 하나엔지니어링 전무)를 선출했다. 신임회장 이만호씨는 "앞으로 회원배가운동과 군포교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부산신불 차량영주 달기

부산불교운전기사회(회장 백봉도)는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후원으로 5월31일 범일동 일대에서 차량영주달기 운동을 펼쳤다. 부산불교운전기사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이번 행사는 108영주 5천대를 차량에 걸어주며 안전운전을 기원했다.



#### 제석사 원효성사 탄생 1381돌 다례

조계종 제10교구 경산 제석사(주지 태경)는 5월29일 원효성사 탄생 1381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혜사주지 법타스님을 비롯 원효선원장 도영스님 불교대구방송 총괄국장 장적스님 조춘호 경산대학교수 등 사부대중1천여명이 참석했다. 원효스님의 탄생지로 추정되는 제석사는 스님이 탄생하신 매년 음력5월4일 다례재를 봉행해왔으며 올해는 특별간연과 문화행사도 함께 마련했다.



#### 한국불교법회총 중정 취임법회

한국불교법회총 제4대 중정 취임식 및 경제회생 국운옹장 기원법회가 4일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봉행됐다. 이 자리에는 세계불교법회총 공동대표 청화스님, 조동종 종무원장 운송정스님, 삼통종 중정 이대산스님, 여래종 중정 석인왕스님, 법상종 총무원장 법륜스님을 비롯해 직각종 총무원장 최정정사, 태고종 前 전국신도회장 김철회씨 등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 조계종 '포교사 전문화' 워크숍

포교사 전문화를 위한 워크숍이 5월30~31일 서울 올림픽과 크텔에서 열렸다. 조계종포교사단(단장 성타스님)이 주최, 2백 80여명의 포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포교사의 새로운 활동 유형과 역할' 등의 기초강의와 정승년, 군포교, 사찰·직장 등 분야별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성타스님은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효율적으로 포교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민족통일불교협 판문점서 법회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의장 법혜스님)는 5월28일 대원스님(각원사 총무)과 협의회 부산지부 천안지부회원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분단의 현상인 판문점과 제3땅굴 도라산반대를 방문하여 평화통일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의장 법혜스님은 "우리불자들의 원력으로 분단조국이 통일되도록 발원하자"고 말했다.

## 가정구급 침술대학 생긴다

### 불가침구학회 '자원봉사회' 설립계획

사찰의 침술자원봉사회 발족을 위한 가정구급 침술대학이 생긴다. 불가침구학회(회장 이홍재)가 수천년간 전수해온 불가의 침술비전을 통해 사찰과 단체에서 자원봉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설립한 가정구급 침술대학(학장 조항원)이 18일 문을 연다.

개설강좌반은 가정에서 사용할 일반인들을 위한 구급기본 강좌반과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자원봉사 강좌반이 마련된다. 개설과목은 '침술의 이해' '침사용법' '구급침술 실기' 등이다. 강의는 매주 목·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조항원학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손쉽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침술봉사"라며 "사찰이나 단체에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2)725-2999

### 하북동 철연회 전국모임

13-14일 충남 신탄진

하이텔불교동호회 봉사모임 철연회(회장 이승덕)는 13, 14일 충남 신탄진 보현불교대학 수련장에서 제7회 전국모임을 갖는다. 통신활동하는 장애법우는 전국 어디서든 참가의사만 밝히면 철연회에서 교통편 등 일체 편의를 무

료로 제공한다. 철연회 모임은 거동이 불편한 7명의 중증 장애법우를 통신법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계기가 돼 매년 2회 이틀동안 생활하며 수련하는 모임으로 발전했다. 한편 철연회는 자원봉사활동기금을 마련키 위해 자작그림, 도자기, 약, 차, 목공예품, 장난감, 생활용품등 기증품을 접수받고 있다. (032)547-0268 이승덕.



▷불기현 연수회에서 김병규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강의하고 있다.

### "비구니·어린이 지면 확대"

#### 불기현 전반기 연수회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과산 다보수련원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98년 전반기 연수회를 개최했다.

'불교언론의 환경변화와 새길찾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 김병규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이제 불교언론이 성장위주에서 정착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전제하고 "불교집안에 의존해온 취재대상 및 독자층을 일반으로 확대하고 비구니스님과 어린이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면 신설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불경연구로 서구사상 극복"

### 대구지역 교수 20여명 회원 화엄경과 화이트헤드 연구 금강경 영역·서반어역 진행

라는 의미에서 회명을 '화화회'라 정했다. 화엄경으로 그로스터디를 시작했으나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금강경으로 교재를 바꾼단 5개월전. 금강경이 조계종의 소의경전이다 불교경전의 백미라는 점이 작용했다. 우선 금강경으로 불경에 익숙해진 뒤 화엄경학습에 들어갈 계획이다.

회원들은 경북대와 포항공대등 대구와 인근의 상아탑에서 강의를 맡고있는 석·박사급의 교수들을 주축으로하고 있다. 작은 모임이지만 분위기는 화기에애하고 열기는 화끈하다. 화화회는 경전을 단순학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여러 원전간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으며 정공학문이나 서구사상과의 연계 혹은 대조를 통해 나름대로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틀과구를 모색하려 한다. 학습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

다. 금강경역해가 출간을 앞두고 있고 금강경의 영역과 서반어역도 진행중이다. 지난해 5월에는 화화회를 모태로 한국동서정신과학회가 탄생했다. 무비스님이 감수한 금강경역해는 금강경의 내용을 현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재해석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회원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5시부터 9시까지 정기모임을 가지며 가끔 성지순례도 떠난다. 작년1월 인도로 성지순례를 다녀왔고 부석사 해인사등 화엄총찰에 대한 순례는 아직 진행중이다. 올 여름방학에는 해인사에서 2박3일간 금강경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탐방 화화회



▷화화회는 매주 화요일 화엄경 금강경 등 불교경전을 공부하는 모임을 갖는다.

불경연구를 통해 서구사상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모임이 있다. 96년 봄 2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된 화화회(회장 조원춘 경북대교수), 화엄경과 서양철학의 거두 화이트헤드를 연구하는 화요일 모임이

# 왜, 침묵했는가?

일평생 쌓은 모든 것을 다 던져주면서도, 한마디 대응없이 수행에만 몰두한 것은 내 전생의 죄업과 금생의 인과를 믿었기 때문이다.

석용산 스님의 마하무드라 Rev. Suk Yong San

# 진짜 나 가짜 나

인도에서 히말라야 설산에 이르기까지 구름들과 숨어 사는 성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음의 고행길에 오른 석용산 스님의 구도록!

수행자가 발우 하나, 옷 한 벌이면 족하다 하였건만, 왜 이렇게 많은 인연을 갖게 되었을까?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밑바닥 욕심 때문이었을까? 하나 같이 기습에 못을 치고 달아나는 저것은 무엇인가! -본문중에서

•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석용산 지음 | 신국판 350원 | 값 8,000원

문학수첩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TEL. 790-5999(대) FAX. 790-6656

